

농촌노인의 가철성 의치장착에 관한 실태조사

전북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보철학 전공 장태엽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치아우식증 치주조직질환 등의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치아가 점차 상실되어 가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특히 노인의 경우 이러한 치아상실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상실된 치아를 인위적으로 회복해 주기 위해 국소의치나 총의치와 같은 가철성 의치를 사용하게 된다. 특히 농촌은 여러 가지 사회요인들에 의해 도시에 비해 노인의 점유비율이 높고 이들이 평소 구강보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음에 따라 치아상실이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가철성 의치의 수요가 더 크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노인에 비해 농촌노인들의 열악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이러한 수요가 질적, 양적으로 크게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한국 농촌노인의 구강건강과 가철성 의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전라북도내 7개군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남,녀 각각 284명과 364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이들에 대한 잔존 치아상태와 가철성 의치장착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조사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총조사대상자 중 상악의 경우 완전무치악과 부분무치악이 각각 30.71% 와 55.56%으로 86.27% 가 가철성 의치장착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하악의 경우 완전무치악과 부분무치악이 각각 18.21% 와 67.59%으로 85.8%가 가철성 의치장착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2. 무치악 상태에 따른 의치 장착률은 상악의 경우 총의치 장착률은 66.83% 이었고 국소의치 장착률은 24.17% 이었으며, 하악의 경우 총의치 장착률과 국소의치 장착률이 각각 67.80%, 23.06% 이었다.
3. 부분무치악의 경우 상, 하악 모두 Class I, II, III, IV 순으로 부분무치악 비율과 이에 대한 의치장착 비율이 감소하였다.
4. 의치장착자 중에서 42.73%만 정식 의료기관에서 의치를 제작하였으며, 이중 16%만이 의치장착 후 6개월 이후에 정기적인 내원을 한 경험이 있었다.
5. 의치를 하루에 사용하는 정도에 있어 하루 종일 사용하는 노인이 65.38% 이었으며, 반면 10.69%의 노인은 통증, 유지, 저작, 이물감에 관련된 문제에 의해 의치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
6. 의치의 심미성, 발음기능, 이물감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만족한 반응을 보였으나, 의치의 저작기능과 유지력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으며, 30.77%의 노인이 의치 장착과 관련하여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7. 의치 사용시 가장 불만족스러운 사항으로 유지력과 저작기능에 관한 불만이 79.91% 이었다.